

오늘의 기사판

26일
▶제 93차 광주경제포럼 조찬 세미나=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

제 93차 광주경제포럼 조찬 세미나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1층

실, 한국식품연구원 이세은 박사가 '무안 친환경 쌀과 양파를 이용한 혈당 조절 가능성 쌀 개발'을 주제로 쌀 산업 현황·가능성 쌀의 산업 전망 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이순욱 목포대 강사는 '청태전 이론적 연구' 등에 대해 발표.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 11회 정기공연=29일까지 오후 7시30분 드림 아트홀.
▲우크라이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오후 7시30분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5·18관련 그림 및 사진전= 30일까지 (재)5·18기념재단.
▲김영순 특별전=31일까지 동림우체국.
▲전남대 평생교육원 동양화과정 전시회=10월 8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여림회전=27일까지 상계갤러리.
▲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 '미문호전'= 27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김인화 초대전=31일까지 북광주우체국.
▲조선대 미술학부 졸업전=27일까지 조선대미술관.

역사속의 오늘

▲정부, 법원조직법 공포(1949)
▲국군, 서울 탈환(1950)
▲일본 자위대 창설(1953)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발족(1974)
▲인공위성 '우리별 2호' 프랑스로부터 기어나 크루기지에서 성공적 발사(1993)
▲제1회 방콕국제영화제에서 장선우 감독의 '꽃잎이' 최고상 수상(1998)
▲'개구리소년' 유골, 대구 와룡산서 발견(2002)

뉴스퀴즈

31.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회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까지 촉발하며 법조계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및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 논란이 일면서 '법조 3권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강조하며 지난해 9월 취임한 제 14대 대법원장은 누구일까요.
① 이용훈 ② 정성명 ③ 윤광웅 ④ 천정배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돌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변환비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쿼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이 양욱 <여수화대초등학교원호분교장 교사>

"물 찍고, 먹 찍고 ....."
"하나--두울 셋 ....."
"선생님, 이번에는 먹부터 찍어요?"
"응, 너하고 싶은 대로 해 봐야지?"
"선생님, 이 선 먹색이 정말 맑지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 보다 훨씬 더 잘했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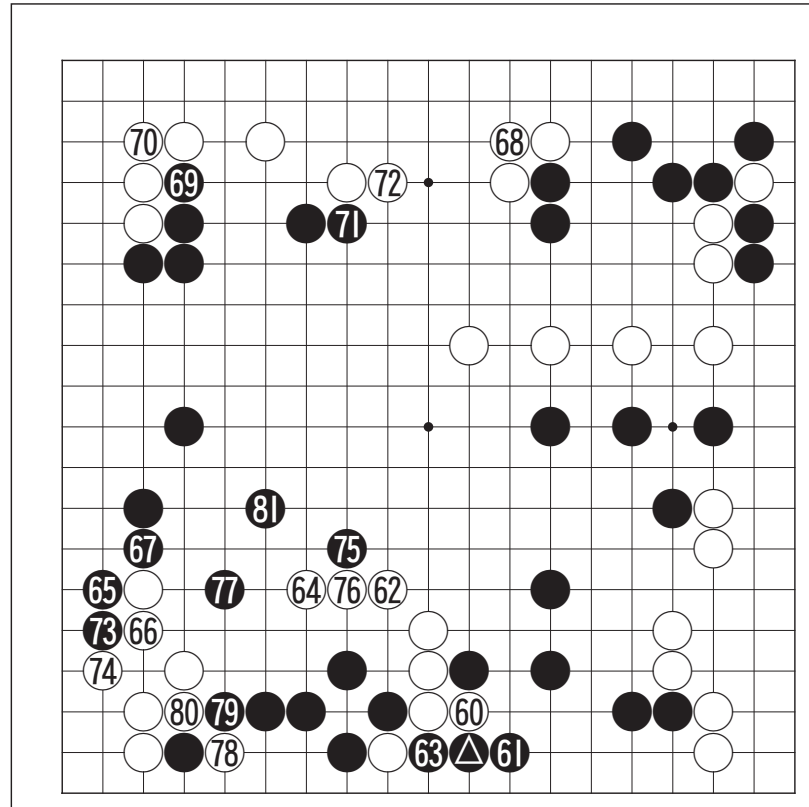
우리 것으로 여유로움을 배우며

우리 반의 아침은 이렇게 문을 연다.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고 행복한 아침 시간이다.
아이들은 선긋기를 하고 사군자를 치면서 우리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되었으며, 사군자 그림을 감상하며 우리 그림을 이해하고 구도를 스스로 잡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나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창의력도 길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교과 공부에 전이되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사군자의 여백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은 바람직한 품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인성교육으로 접목되었다.
가끔은 아이들이 그림을 들고 와
"선생님, 이 그림은 농먹의 까만 색이 너무 멋지고 여백이 많아서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이 하나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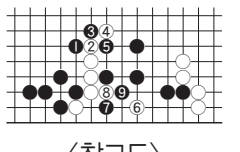
"선생님, 저는 이 그림에서 화제를 쓴 자리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제가 작가라면 이 부분에 담목을 썼을 텐데 ....."
"그러면 좋겠네요. 우리 꼬마 작가님!"
이렇게 하기를 일곱 해, 처음에는 체계가 잡히지 않아 가르치는 나도 힘이 들고 배우는 아이들도 힘이 들었지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사군자 기법과 순서를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월호도 이야기'를 주제로 문화와 개인전을 열었는데, 모기업의 후원으로 우리 학교 전교생 10명의 꿈나무들과 함께 가슴 벅찬 오프닝 행사를 가질 수 있어 고마웠고, 지금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해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며 언젠가는 나와 함께 전시회를 갖겠다는 예쁜 꿈을 가진 아이도 있어 행복할 뿐이다.
나는 오늘도 꿈꾸어 본다. 이 아이들과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우리 그림에 대해 밤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6일 (음 8월 5일 戊午)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직기탁대회



<참고도>

찬스를 놓치지 5보(60~81)

白 이강민 5단 <PCA생명>
黑 박정규 5단 <KT A>

백이 하변을 심하게 돌파했으니 흑은 공격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당장 집 부죽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박정규 5단의 마음이 약해졌다. 흑 61는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뒤를 확실하게 해 놓고 공격을 하겠다는 심약한 수였다. 이 수로는 즉각 '참고도'의 흑 1로 덮어써줄 곳이였다. 백이 2로 나가면 3으로 막고 5로 무조건 끊어 버린다. 이것이면 백 돌의 명맥이 끊어진다. 아래쪽은 6으로 달려보더라도 7로 뛰면 그만이다. 흑 62를 보더니 이강민 5단도 위함을 느끼고 62로 철수해 버린다. 이것으로 절호의 찬스는 건너가 버렸다. 겨우 흑 63으로 끊어 한점을 잡았으나 이미 흑진은 유린되어 글자 그대로 이사를 좁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흑 67도 상변 68로 끊을 곳. 흑의 집 부죽증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창호, 이세돌 28일 춘란배 출격

이창호 9단과 이세돌 9단이 28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제6회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8강전에 출전한다.
이창호 9단은 중국의 구리 9단과 대국하고, 이세돌 9단은 중국의 씨에허 6단과 격돌한다. 이창호 9단은 구리 9단과 상대 전적에서 4전 3승 1패로 앞서고 있다. 이세돌 9단은 최근 LG배 16강에서 씨에허 6단에게 불쾌해한 전적을 갖고 있다.
중국은 후야오위 8단과 창하오 9단, 저우허양 9단과 평헝 7단이 각각 격돌한다. 춘란배는 중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대회.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지며 우승상금은 15만 달러.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sections for language learning.